

#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부엌 계획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중심으로 -

The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Kitchen Design of 20 century's Korea and Europe

- Centered on Park Gil-Yong's improved kitchen and German Frankfurt kitchen -

정찬미\* / Jung, Chan-Mi

김현정\*\* / Kim, Hyun-Jung

## Abstract

The change of idea about overall politics, society, technology, and culture in 20th century led to the change of kitchen which is the central space of household affairs as well. Frankfurt kitchen of Margarete Schuette Lihotzky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t Germany International Trade Exhibition in 1927 functionally designed small space of 6.5m<sup>2</sup> with considering move-line and convenience. This is the beginning of kitchen type which has built-in sink and cupboard that is regarded as an universal option these days, and this has extensively been applied to kitchen system throughout the world after the repetitive development in America, Sweden and Switzerland. And improved kitchen of Park Gil-Yong which was influenced by rationalism introduced from the house improvement campaign and the opening of a port which were progressed in Korea in 1919~1930 is the first stand-up kitchen which improved the inefficiency of Korean conventional kitch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nge aspect of kitchen through the rationalization in each country by comparing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the times, change of space for residence and kitchen, and the characteristics of kitchen plan which had influence at the turning point on the kitchen in Korea, Europe on the side of efficiency at the same period, take into consideration of our residing-culture which has rapidly been changed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o see the direction of kitchen design which copes with the unique residential environment.

키워드 : 부엌변천, 박길용, 마가레테 슈테 리호츠키, 프랑크푸르트 부엌

Keywords : Change of kitchen, Park Gil-Yong, Margarete Schuette Lihotzky, Frankfurt kitche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초 정치, 사회, 기술, 문화에 걸친 사고의 변화는 가사노동의 중심공간인 부엌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1927년 독일에서 선보인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불박이 싱크대와 찬장을 갖춘 부엌형태의 효시이며, 한국에서는 주택개량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박길용에 의한 개량부엌 설계안이 1931년 K씨 주택에 적용되었다.<sup>1)</sup> 본 연구는 유럽의 산업혁명과 한국의 개항 이후의 시기

에 있었던 근대화라는 변혁의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동시대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전환기적 영향을 준 프랑크푸르트 부엌과 박길용 부엌의 도입배경, 주거 및 부엌공간의 변천, 부엌계획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각각의 주거환경에서의 합리적 사

1) Margarete Schuette Lihotzky, 1897~2000 : 예술산업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오스트리아의 초대 여성건축가. 1927년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출품한 세계최초의 조립식 종합주방설비를 갖춘 '프랑크푸르트 부엌'을 통해 '부엌 건축가'라는 명성을 얻었다. 이후 러시아 등 세계각지에서 활동하며 대형공사에 참여했다.

朴吉龍, 1898~1943 :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건축 정규교육을 받은 건축가. 1919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건축과를 졸업하여 1920년부터 13년간 총독부에서 근무함. 합리주의 건축을 통한 한국건축의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1932년 건축사무소를 내고 활동하면서 후진양성에도 힘썼다. 대표작으로 화신백화점(1937)이 있고 주요저서로는 1933년 출간된 <재래식 주거개선에 대하여>가 있다.

\* 정회원, 강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현대산업개발 주택설계팀 부장

고를 통한 부역변화양상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전통성과 근대성 사이에서 급변해온 우리의 주거문화를 돌아보고 고유의 주거환경에 대응하는 부역디자인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전통부역에서 현대부역으로 변모되는 과정의 한국과 유럽의 표본이 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현대식 일체형 부역의 효시인 프랑크푸르트 부역과 개화기에 한국 재래부역의 개량을 최초로 실현한 박길용의 개량부역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계획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부역이 도입된 사회, 기술, 건축, 여성 및 시대의식의 동향을 살피고 주거공간과 부역의 변천 과정 및 요인을 파악한 후, 박길용의 개량부역과 마가레테 슈테르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역을 대상으로 계획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 2.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의 시대적 배경

### 2.1. 한국의 정치적 상황, 외국건축 유입, 가사의 변화

#### (1) 일제 강점기의 문화정치

개항과 더불어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한일합방 이후 1914년 조선을 병합하기위해 무단정치를 실행한다. 1920~30년대는 근대화가 진행되는 시기로 1919년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언론활동이 허용되고 신분타파운동, 농촌 계몽운동 등이 본격화되었다. 조선의 3.1운동은 일본제국주의에 타격을 주어 일본은 무단통치대신 문화정치를 표명하였고<sup>2)</sup> 지배정책의 변화는 성과를 거두어 민족주의의 우파는 비혁명 노선을 택하였으며 실천의 장을 정치영역에서 문화영역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운동'이라고 불렸으며 독립을 위한 실력양성과 교육·산업·문화의 향상이 강조되었고 주거분야에서도 주택개량이 제기되어 주택개량운동으로 발전하였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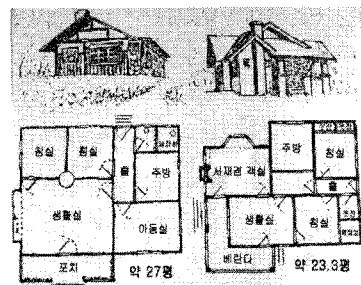
#### (2) 외국 건축의 유입과 주택개량

1876년의 강화도조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한 부산, 인천, 목포 등의 개항과 열강과의 통상조약으로 인하여 외국상인이 출입하였고 그들 거주지에 외국양식의 건축물이 조선에 세워졌다. 그리하여 개항지의 공관과 주거건축으로부터 한국건축의 수동적 근대화가 형성되게 된다. 또한 임오군란을 계기로 외국인의 성내거주가 허용됨으로 서구 건축물이 서울에 등장하였고 1887년 외국인인을 보호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교회와

학교도 세워졌다. 한일합방 이후부터 해방 이전에 이르는 한국의 건축문화는 서양·일본건축의 절충된 양상에 한국건축을 가미한 혼란한 건축문화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건축의 근대화를 위한 올바른 모색과 뚜렷한 양식이 없는 공백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중 서양건축의 영향으로 1929년 경성전기주식회사사옥의 건립을 시초로 한 합리주의건축이 출현하였다<사진 1>. 그 후 신동아 백화점, 조선일보사 등이 출현하나 이는 합리성에만 근거한 형태가 아닌 서양풍 고전양식이 보이는 등 과도기적 절충주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즈음하여 정규교육을 마친 한국인 건축가들이 등장함으로써 도목수에 의존하던 시대가 건축가의 시대로 바뀌었으며 역사적 유대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근대화가 진행된 한국의 건축은 다소 반성의 여지를 보이게 된다.<sup>4)</sup>

한편, 1922년 건축분야에 관계된 공무원, 시공기술자, 도급업자, 설계전문학자로 결성된 '조선건축회'가 창립되었다. 이들은 당시 주요건축물에 참여한 사람들로 초기에는 일본인 기술자 위주의 운영을 했으나 점차 근대건축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이 가입되면서 그들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창간호인 <조선건축> 1922년 6월호에 주택개량에 대한 논문이 게재되는 것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주거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렇듯 신문화 운동, 서양식 교육이 강조되었고 식침분리 등의 생활양식개선과 주택구조개량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식인들은 이상적 모델을 일본과 서양에서 찾았으며 한옥은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하여 전자와 후자를 절충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당시 건축가였던 김유방은 서구식 방갈로 주택을 소개하며 그것이 갖는 자연미와 처마가 넓은 점이 한옥과 비슷하다고 주장하였다. 내부는 침대를 사용하는 침실이 갖추어지고 웅집실과



<그림 1> 문화주택, 김유방, 1922

거실이 분리되었으며 화장실이 주택본체에 붙여지고 각 실이 복도로 연결된 집중형 주택의 형태를 띠었다<그림 1>.<sup>5)</sup> 또한 다다미와 온돌을 혼용한 신석정씨의 절충형 주택도 등장했다. 더불어

4)최순애, 박길용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pp.18~20, 64~65

5)1922년 [개벽] 32, 33, 34호 연재로 김유방은 전통가옥의 장단점을 열거하고 양옥과 한옥을 절충한 문화주택을 설계하여 근대형 주택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완전한 양옥은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라 할 만큼 서양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 이영주, 개화기이후 한국재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6, p.72

2)1920년대 초 일본에서는 문화주의가 한창이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조선에서도 '문화'라는 용어가 근대화와 서구화의 상징으로 유행했다.

3)금정아,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산업대학원 석사논문, 1991, pp.9~13 재구성

문화운동의 지류로 합리성에 바탕을 둔 생활개선운동이 진행되어 재래주택의 결점이 토론되고 위생론적 주택개량에 대한 논의가 부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신문, 잡지를 통해 보도되었다. 재래주택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전문인의 지적 및 제안과 더불어 전문가의 견해, 건축법규, 건축설계지침에 대한 상담과 도면자료가 게재되고 내용은 주택의 복층화 같은 건축구조부터 부엌의 향 및 위치, 부엌과 부속공간 간의 동선, 부엌과 마루의 일체화 및 내실화, 마루의 응집실화, 의복의 간소화, 가사량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온가족의 동시식사 등 주택공간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생활방식에 관한 것도 있었고 우물설치, 아궁이개량, 굴뚝개량, 공간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한 식당설치, 통풍을 비롯한 위생 및 청결과 능률에 대한 고려, 채광을 위한 유리부엌문 설치, 부엌의 마감, 김치독을 냉장고로 사용, 시령을 이용한 수납 등 부엌에 관한 언급이 유독 많았다.

### (3) 남존여비사상 및 신분제의 붕괴로 인한 가사의 변화

19세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천주교와 동학은 남녀평등사상을 고취시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자각을 촉구하였으며 개항이후 서구의 근대사상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영향으로 1886년 이화학당을 비롯한 여성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고 여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의 활동영역인 주택에 있어서 가사의 간소화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었다.<sup>6)</sup> 또한 신분제도가 붕괴되어 노복의 일을 가족이 하였기에 더욱 간편화가 요청되었다. 제일 먼저 대두된 것은 부엌개량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는 유교의 윤리 하에 소홀히 다루어졌던 여성의 작업공간에 대한 배려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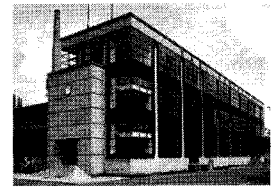
## 2.2. 유럽의 시대이념, 기능주의 건축과 주택, 직업여성

### (1) 산업혁명과 합리주의·기능주의건축

19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대량생산은 철, 시멘트, 유리를 건축에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건축재료는 철골구조와 대평판 유리에 의한 새로운 건축물을 탄생시켰고 돌과 벽돌에 의한 수공업적인 건축을 공업적이고 과학적인 대스판과 고층구조의 건축으로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등장한 교량, 공장, 백화점, 사무소와 같은 건물은 밝고 큰 공간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한 합리주의건축이 성행했다.<sup>7)</sup>

산업혁명에 의해 산업화가 진행되던 유럽은 1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폐해로 인한 경제력퇴보와 절망감으로 혼란스러웠으나 사회주의운동이 부흥하여 사회를 움직이는 힘으로 대두되면서 안정되어갔다. 이에 따라 대량생산체제가 출현 가능한 산업적 토대가 마련되어 각국에서 공업화와 도시화가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서 이태리 미래파, 독일 표현파와 바우하우스, 프랑스 에스프리누보 등 예술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서

건축에도 새로운 형태의식에 의한 기능주의<sup>8)</sup> 양식이 등장하였다. 기능주의 건축의 최초 예로는 파그스 구두공장이 있으며 <사진 2> 이후 기술과 공업의 대규모화를 배경으로 철재 및 철근콘크리트의 라멘구조가 활용되고 채광, 조명, 음향, 환기 등의 인공적 환경계획이 연구됨으로써 기능주의 건축이 실현되었고 바우하우스가 확대되고 CIAM<sup>9)</sup>이 결성되는 등 국제적 근대건축운동이 전개되었다.



<사진 2> 파그스 구두공장, 발터 그로피우스, 1913

### (2) 집합주택의 출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쟁점 중의 하나는 주택문제였으며 그 해결은 종래의 정책으로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신도시건설이 예정되었고 주택은 기능주의사상에 힘입어 '공동체를 위한 설비'라는 개념으로 건축되어 기술 및 재료의 발달과 함께 집합주택의 등장배경을 형성하였다. 세계대전 중 중립국으로서 공업국으로 성장한 네덜란드는 일찍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공공주택·시설이 건설되었고, '최소생활을 위한 유니트 계획'이라는 테마아래 노동자집합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주택건설은 단순한 형태를 추구하며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계층으로의 적용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sup>10)</sup> 네덜란드의 집합주택을 시작으로 1920년대 유럽집합주택의 평면,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연구가 표준화·규격화 측면에서 이루어졌고 최소생활을 위한 기능적 공간이 형성되었으며 난방기구, 주방싱크대 등의 설비와 가구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실내공간의 가구화로 인해 장식가구에서 기능가구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단순화·표준화·규격화된 공간의 추구는 공업적 생산을 위한 디자인 통일에 의해 조형적 단순화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제양식으로 보편화되어 건축 및 가구디자인의 주된 흐름으로 발전했다.<sup>11)</sup>

### (3) 직장여성과 합리적 가사에 대한 인식

20세기 초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의 해결을 위해 여성의 사회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보수적인 사람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위협적이었다. 그 결과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성에게 남성과 동일한 의무

8)기능주의(functionalism) : 용도, 기능에 따른 형태, 구조, 소재를 고려한 건축과 공예는 스스로 미를 가진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근대공업의 발달에 따라 생활의 합리화와 함께 대두됨. - 이영훈, 바우하우스 조형이론과 현대 디지털 디자인 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4, p.40

9)1928년에 스위스에서 개최된 근대건축국제회의로 르코르뷔제가 회의를 주도하며, 기본개념을 구상하였다. 회의의 주된 과제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이었고 회의의 과정을 주도한 사람들은 미학적인 측면보다는 실사회적인 요구에 관심을 둔 건축가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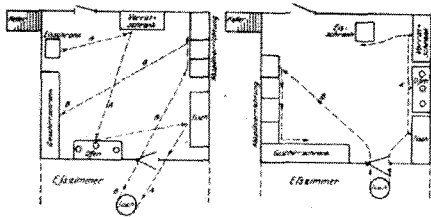
10)정신원, 1920년대 유럽의 주거공간과 강관 의자디자인의 비교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1998, p.5, p.18 재구성

11)정신원·신홍경, 1920년대 유럽의 집합주택에 적용된 강관의자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8, pp.139~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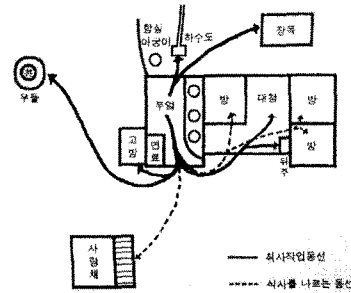
6)황중수, 개항이후 한국 재래 부엌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 1990, p.29

7)최순애, op.cit., pp.5~7 재구성

와 권리를 주는 대신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하며 그러한 지위가 남성의 직업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주장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여성단체들은 가정을 여성의 전문작업장으로 규정하고 가정공간을 개혁하고자했다. 전문가들은 집안구조의 단순화와 노동의 최소화에 주력했으며 시간과 동작을 연구하여 생산성증가와 노동절감에 관련된 상품을 고안했다. 또한 '가정 과학(Domestic science)'의 기초자로 불리는 크리스티네 프레데릭(Christine Frederick, 네덜란드)의 책이 발간되기도 하였다. 프레데릭은 가사노동을 근대화 및 사회적 진보와 연관시켰다. 체계적 가사활동에 따라 여성들은 '워크 스테이션'으로서의 부역을 경영하는 가정 매니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12)</sup> 또한 그는 동선연구를 통해 부역시설물의 배치와 가사효율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였으며<그림 2> 그의 책 <새로운 가정 관리(The New Housekeeping)>는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역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sup>13)</sup>



<그림 2> 프레데릭의 동선분석



<그림 4> 한옥의 취사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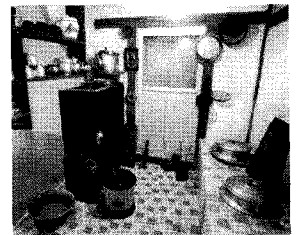


<사진 3> 재현된 전통부역

구도 운반에 용이하게 제작되었다.<sup>16)</sup> 대가족에 맞는 음식준비를 위해 찬방, 꽃간, 광 등 수장공간과 부속공간이 마련되었으며 작업공간이 방, 마루로 확장되어 집안전체가 부역역할을 하였다. 전통부역은 긴 동선과 공간 간의 높낮이가 다른 데서 오는 불리한 노동조건을 갖추었지만 농사일과 집안일이 병행되던 그 시절에 적합하여 마당이나 부속건물에서 자연스런 분·협업이 이루어졌으며<sup>17)</sup> 부역에는 나무청과 물항아리, 그릇을 두는 살강, 절구통, 맷돌, 숯 등이 있었다<사진 3>.<sup>18)</sup>

(2) 개량형(1920~60년대)

1920~30년대에는 방갈로풍의 서양주택 또는 다다미방을 갖춘 일본주택과 절충한 형태인 문화주택이 있었으며 식당, 욕실, 변소가 내실화되었다. 또한 개량한옥도 도시주거로 등장하였다. 분산형 홀집인 전통주택이 겹집화되던 이 시기의 부역은 구석에 위치하여 통풍과 채광에 불리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sup>19)</sup> 출입과 동선 등 타 공간과의 관계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 부역은 연탄사용으로 연료저장 공간이 감소되고 입식연탄아궁이로 바뀌면서 바닥의 높이차가 줄었으며 급배수설비가 갖춰졌다. 또한 유리문과 시멘트 마감이 등장하였다. 1957년에는 가스레인지가 도입되어 취사를 담당하였으며 찬장 등의 수직적 수납개념이 생기고 개수대와 조리대를 마련하였다. 타일마감이 유행하고 석유풍로가 취사보조로 사용되었다<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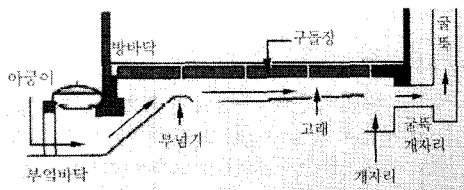
<사진 4> 1950년대의 부역 석유풍로, 타일마감된 부뚜막

3. 한국과 유럽 주거 및 부역공간의 변천 비교

3.1. 한국의 주거 공간 및 부역의 변천

(1) 재래형(1920년대 이전의 부역)

전통부역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벽, 바닥이 흙으로 마감되어 안체에 붙여졌다. 구성은 나무를 때는 좌식아궁이와 부뚜막을 기본으로 하였고 온돌과 부역은 긴밀히 연계되어 부역바닥이 방바닥보다 낮았다<그림 3>.<sup>14)</sup> 음식상은 부역에서 마당과 대청을 거쳐 실내로 운반되었고<그림 4><sup>15)</sup> 부역용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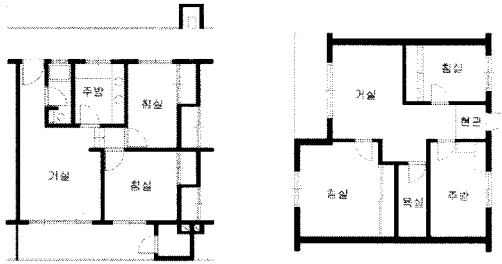


<그림 3> 온돌난방의 단면

1960년대에는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초기 아파트의 부역은 폐쇄적이었지만 식침분리가 성립되어 가사노동이 절감되었다. 또한 연탄보일러가 도입되어 난방과 취사가 분리됨으로써 부역이 위치적으로 독립하고 바닥높이차가 없어져서 완전한 내실화가 이루어졌으며 주방으로 불리었다<그림 5>.<sup>20)</sup>

12)이란표, 초창기 모더니즘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쉬테-리호츠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p.23  
 13)김호미술관, <Utopia - 이상에서 현실로> brochure, 200809  
 14)백영흠·안옥희, 한국 주거역사와 문화, 기문당, 2003, p.53  
 15)황중수, op.cit., p.18

16)이미혜, 한국 현대 부역가구의 변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5, p.5  
 17)함한희, 부역의 문화사, 살림출판사, 2005, p.86 재구성  
 18)부역가게도구를 바닥이나 아궁이에 펼쳐놓고 작업하였다. -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부역×키친展>, 200609  
 19)이미혜, op.cit., p.7  
 20)서은진, 서울 생활권 소재 중·대형 공동주택 단위세대 계획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 디지털정보대 석사논문, 2003, p.18



<그림 5> 개명아파트(좌, 연탄아궁이, 1959)와  
마포아파트(우, 연탄보일러, 1962)

(3) 입식형(1970년대)

입식형 부엌은 효율과 위생이 고려된 부엌으로 공장제 입식 시설이 도입되어 수납을 최대화하는 캐비닛이 배열되고 부뚜막을 없앴으며 개수대가 스테인리스싱크대로 바뀌면서 조리대 및 수납장과 한 벌로 만들어졌다. 여권신장을 배경으로 냉장고, 전기밥통이 사용되어 작업의 능률화를 추구하고 주방내의 동선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였다. 부엌은 과학적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부엌공간에 색채개념이 형성되었다<사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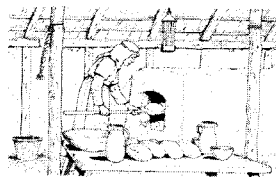


<사진 5> 오리표 주방,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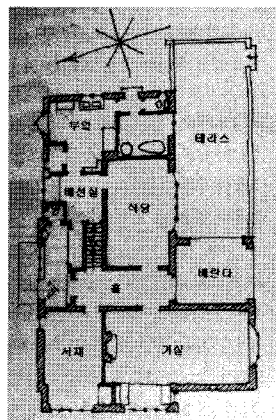
3.2. 유럽의 주거 공간 및 부엌의 변천

(1) 1920년대 이전의 유럽부엌

유럽의 부엌은 입식 화덕과 조리대를 기본으로 하며<그림 6> 전통농가에서는 화덕이 가족공동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개방되어 홀과 연속성을 가지며 가옥의 중앙에 있지만 중세에 도시주거가 형성되어 복층주택이 등장하고 각실의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폐쇄적이 되고 거실에 붙어서 취사를 전담하게 된다. 근세를 거치면서 부엌은 부속공간으로 식기실, 식료품실, 배선실을 두었으며 식당 옆에 배치되었고<그림 7><sup>21)</sup> 급배수시설과 가구가 갖추어져갔다. 부엌가구는 디자인사조에 의한 영향을 받았으며 장식적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그림 6> 유럽 전통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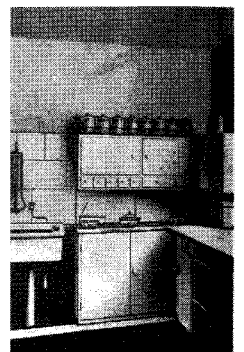
<그림 7> 하우스 드 벨렛, H. 무테지우스, 베를린, 1911

(2) 20세기 초의 유럽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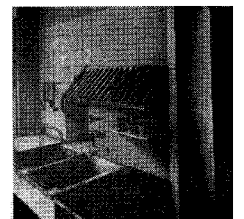
1) 바우하우스<sup>22)</sup>의 주택과 부엌

21)노버트 쉐나우어, 집, 다우, 2004, p.438

규격화와 산업합리화 속에서 환경의 통합화를 추구했던 바우하우스의 창립자인 발터 그로피우스는 산업과 미술이 하나되는 종합예술을 바탕으로 일상용품과 가구에서부터 실내공간, 집합주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계적 시스템에 의한 기능미학을 창조하고자했다. 바우하우스는 대량생산의 미학적·사회적·문화적 원리를 강조했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사회와 그에 따르는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했다. 바우하우스의 목표는 예술의 탐구와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이었고, 전통적 표현 형식을 넘어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과학을 힘입어 생활의 전 단계에서 제작영역을 확장하면서 예술적 생각을 실험을 통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sup>23)</sup> 1923년의 <바이마르 전람회> 준비 중이던 학생들이 건축에 대한 개념을 실제작품에서 명확히 하고자함에 따라 “단일가족이 사는 표준주택”을 목표로 한 실험주택이 세워졌다. 실험주택은 개인용도의 방과 부엌 등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이 중앙의 2층높이의 거실을 둘러싸는 평면구성을 취했으며 내부의 가구, 융단, 조명은 바우하우스 공방에서 제작되었고, 프리패브화된 기성공업제품과 새로운 건축재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규모는 작지만 기능적인 주택으로 주목을 받아 살기위한 기계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사진 6>.<sup>24)</sup> 이후의 마스터주택 역시 진보적 건축법이 사용되었다. 기초는 콘크리트이고 벽은 재·모래·시멘트로 구성된 슬래브로 세워졌다. 설비도 최신기술규격이었다. 바우하우스의 공방들은 부엌 등 건물내부의 특성을 살렸으며 공업화를 염두하여 제작하였다<사진 7>.



<사진 6> 바우하우스의 실험주택 부엌, 게로르그 무헤, 바이마르 암 호른, 1923



<사진 7> 바우하우스의 마스터주택 부엌, 발터 그로피우스, 데사우, 1926

2) 바이센호프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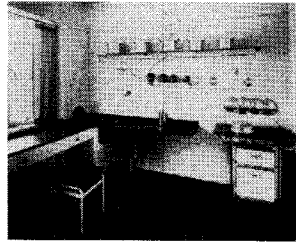
주택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일공작연맹은 실제적인 전환을 시도하여, 1927년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 주거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의 총책임을 맡은 미스 반데어로에는 여러 건축가를 초청하여 주거의 경제성, 합리화, 표준화를 제시

22)바우하우스(Bauhaus) : 1919년부터 1933년까지 바이마르, 데사우, 베를린으로 이어지며 학교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던 조형교육, 조형운동으로 일상용품의 새로운 미학을 탄생시켰다.

23)한스 M.빙글러, BAUHAUS, 미진사, 2001, pp.476~503 재구성

24)윤재희 외, 바우하우스와건축, 세진사, 1994, pp.112~113 / 가구(목재)는 베니타 오테와 에른스트 게브하르트의 디자인으로 가구작업장에서 제작되었다. 급속용기는 테오도르 보글러가 만든 모형으로 켈렌 포르담 도기회사에서 대량 생산했다. 유리 그릇은 쇼트운트 젠 회사(예나 유리)에서 생산했다. - 한스 M.빙글러, op.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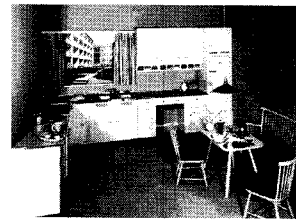
하였으며 이들의 주택들은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능률적으로 실내를 구성하는 기능주의 건축형태를 갖추었고 국가나 지역성을 초월한 공통양식이라는 '국제주의'의 탄생을 선전하였다. 바이센호프 집합주택은 백색의 무장식 벽면, 물매없는 지붕, 순수입방체 볼룸 등 새로운 건축형태를 유리, 철강, 콘크리트의 신자재를 사용하여 과시했으며 다양한 재료와 기술의 실험장이 되었다. 당시 건축가 오우드는 최소 비용으로 노동자 주택을 건설한다는 바이센호프의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으며 그의 주택에는 볼락이 찬장, 표준높이의 작업대, 싱크대, 배수대가 설치된 표준화된 부엌이 갖추어져 있다<사진 8>.<sup>25)</sup>



<사진 8> 바이센호프 단지의 부엌, J.J.P. Oud, 1927

3) 1950년대 이후의 유럽부엌

기능주의를 배경으로 일체화가 진행되어온 유럽의 부엌은 1950년대에 시스템부엌이 첫 선을 보였으며 점차 수납기능이 강화되어 빌트인 부엌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사진 9>. 이 후 식사공간과 식사준비공간이 통합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가족공동공간으로의 개방적 성격을 띠면서 색채가 가미되어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1970년대에는 클래식한 느낌의 부엌이 유행을 하다가 1980년대부터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 9> poggenpoh사의 1950년대 부엌가구

3.3. 한국과 유럽의 부엌변천 비교

한국과 유럽의 20세기전후 부엌변천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계획특성

4.1. 박길용의 개량부엌

(1) 박길용의 주택개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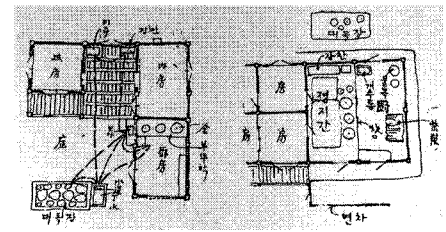
박길용은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활발히 주택개량론을 펼쳤다. 1920년대부터 과학운동에 관여해 온 그는 1924년 발명학회를 창설하기도 했으며 1930년대 과학운동의 일환으로 '생활의 과학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때 그는 주택개량을 실천 하는데 있어 그 기본은 '과학화'와 '능률화'에 있다고 설파했다.<sup>26)</sup>

25)정신원, op.cit., p.43

26)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게, 2008, p.118

<표 1> 한국과 유럽의 부엌변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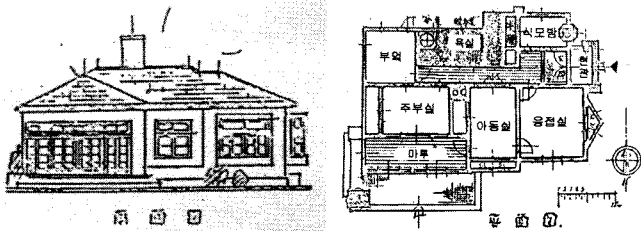
부엌 유형	공통점				차이점			
	사회	주거	여성	위치 및 성격	한국	분석 항목	유럽	
재래형 <sup>27)</sup>	1차 생산 활동	기능구분모호	생산 활동 참여	중앙에 위치	취사·난방	20세기 이전 등장 시기 풍수·음양오행사상, 자연환경, 온돌난방 온 집안의 부엌화 좌식생활, 낮은 부엌바닥 좌식아궁이, 질구, 나무청, 물독	등장 시기 영향 요인 주요 특징	19세기까지 존재 자연환경 다목적기능 입식생활
개량형 <sup>28)</sup>	도시화	집중형접집	기능구분모호	비생산적	뒤쪽에 위치에 위치	취사 1931년 박길용의 개량부엌 개화, 합리주의 주택개량 타 공간과의 동선고려, 난방겸용 개량아궁이, 조리대, 개수대, 식기창, 후드	등장 시기 영향 요인 주요 특징 설비 기구	중세 복층도시주택 부엌의 실내화 화덕, 조리대
기밀고려형 <sup>29)</sup>	산업화·공업화	산업화·공업화 집합주택	기능구분 뚜렷	사회 진출	뒤쪽에 위치에 위치	취사 1970년대 오리표 주방가구 한샘 주방가구 도시화 입식생활 난방기술 발달 타 공간과 부엌 바닥의 높이일치 가열대, 조리대, 개수대, 캐비닛, 후드	등장 시기 영향 요인 주요 특징 설비 기구	1923년 바우하우스 부엌 1927년 바이센호프 부엌 프랑크푸르트 부엌 도시화 합리주의 부엌의 작업장화 부엌 내 동선고려 거실과 연결 화덕, 후드 조리대, 개수대 일체식 볼락이장
현대형 <sup>30)</sup>	산업 기술의 발달	산업형출집	기능구분모호	사회적지위향상	중앙에 위치	가족공동공간 1980년대 이후 삶의 질 향상 인테리어개념 도입 다목적기능 일체식 볼락이장 각종 주방가전	등장 시기 영향 요인 주요 특징 설비 기구	1950년대 이후 첨단기술 시스템키친등장 상부장 개념 도입 다기능화



<그림 8> 경성지방의 재래식부엌(좌)과 북조선지방의 정지간(우), 박길용,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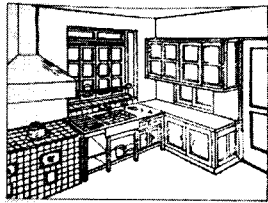
1943년 타계할 때까지 그가 특히 관심을 갖은 분야는 주택에 대한 것이었는데 한국 전통민가를 복선형·중선형·남선형으로 구분하

- 27)재래형 부엌 :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의 부엌으로 취사와 난방, 여성공간이나 가족단란 등 다목적으로 쓰였으며 상하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 28)개량형 부엌 : 도시화가 진행되어 집합주택이 등장하고 부엌의 기능이 취사로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합리적 사고로 인해 동선이나 작업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시기의 부엌으로 불편함을 점차 해소해가는 과정이다.
- 29)능률고려형 부엌 : 산업이 발전하여 대량생산체제가 갖춰진 시기의 부엌으로 본격적으로 효율을 우선시 하여 계획되었다.
- 30)현대형 부엌 : 여러 가전기구가 부엌에 구비되어 가구와 일체화되고 식사와 관련된 기능 이외에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엌이다.



<그림 9> 박길용의 <주택개선일안>에 실린 설계안, 1936

여 분석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북지방 부엌의 능률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그림 8>.31) 박길용은 일본식의 가미, 구미식의 맹종, 재래식과 서양의 혼합, 재래형의 고수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절충적 주택양식의 특성을 연구하여 기능적이고 주체적인 주택개량을 신문 등을 통해 주장하였다<그림 9>.32) 그는 서민용 대량생산주택인 소주택의 구체적인 설계를 제시하고 온돌개량에 관해서도 연구하여 부엌이 안방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지하실을 이용한 아궁이를 도입하기도 하였다.33) 박길용은 부엌을 중시하였으며 그가 1920년대 말부터 언론을 통해 수차례 제시하는 개량부엌의 계획안34)은 당시의 주택개량에 대한 이론들을 반영한 것으로 K씨 주택(1931)에 적용되었다. 그 후아궁이를 각 방의 지하에 설치하고입식 가열대를 갖추어 취사만 담당하는 부엌을 선보였다<그림 10>.35)



<그림 10> 새살림 부엌설계도, 박길용, 1932

31)김정아, op.cit., p.111

32)<주택개선일안(一案)> 1936년 신동아 6권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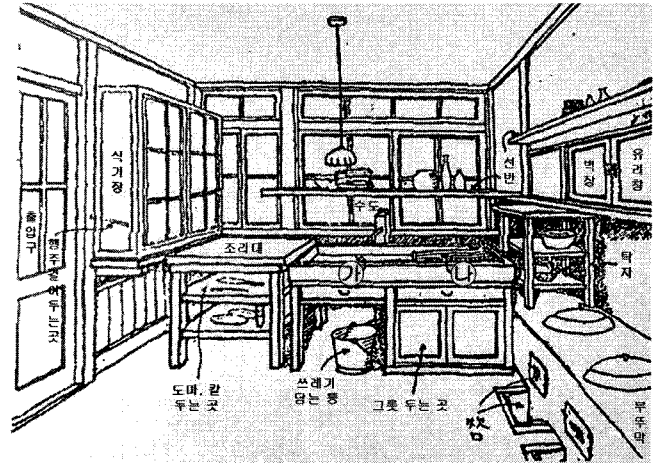
- 양풍구조로 하고 객실의 배치라든지 온돌, 창호 기타 장식에 조선식을 가미한 문화적 주택에 대한 논문을 냄
- 남면도와 평면도를 보면 집중식 배열에 주부실, 아동실, 응접실의 주거 부분을 남으로 놓고 식모실, 주방, 욕실, 변소 등을 북으로 놓음
- 응접실은 테이블, 의자가 사용되는 양상이며 나머지는 온돌로 되어 있다.
- 주방바닥은 콘크리트이고 급배수설비가 갖춰져 있다
- 탈의실은 화장실, 세면실 겸용임
- 총평수 26평, 택지 56평 - 이영주, op.cit., p.77

33)Ibid., p.77 / 광용재,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1990, p.65

34)<유형성의 소위 문화주택> - 주택개조론 中 [廚에 대하여]

- 1930년 9월 조선일보
- 주택은 제일 먼저 부엌개선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 위치는 내방에 면접하여야 한다(하녀실과 접속케 함)
  - 출입은 부엌이 찬방과 연결되어서 복도를 통하여 연결되게 한다.
  - 출입구는 뜰, 식모방, 식당 혹은 내방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다.
  - 향은 채광을 위해 소주택에서 남향하기 곤란할 경우 동향으로 한다.
  - 면적은 15~16평을 기준으로 3평가량이 적당하다.
  - 연와벽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미장함.
  - 벽체 하반부는 타일이나 판자, 상반부는 천정과 같이 회벽으로 함.
  - 창호는 환기와 채광을 위해 가능한 큰 격자창 많이 달기
  - 설비로는 음료설비, 취사설비 및 욕탕 설비를 갖추어 한다.
  - 찬방 밑에는 지하실을 두자.
  - 식기장과 급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자.
  - 조리대 위에 후드를 설치해야 한다.

35)함한희, op.cit., 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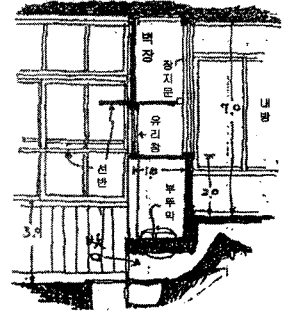


<그림 11> K씨 주택 부엌 투시도1, 1931

## (2) K씨 주택36)의 부엌

### 1) 주방 구조

박길용이 제시했던 개량부엌 계획안(각주34 참조)을 충실히 수행한 이 부엌은 동남향에 면하고 있으며 면적이 한간 반이며 음식조리 및 식료보관을 할 수 있는 반간의 찬마루를 부설하여 식사실로 사용하고 남측 면에 넓은 유리창을 시설하여 채광·환기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수도가 가설된 개수대와 조리대, 부뚜막이 'ㄱ'자형 배치를 하여 가사노동의 동선이 효율적이며 안방에 면해 있는 취사·난방 겸용 아궁이는 개량분구를 사용했다<그림 11>. 동편 출입문에 가깝게 장독대와 수채가 있다. 식모방과는 찬마루에서 출입하게 되고<그림 13> 내방과의 중문에는 벽장이 있는데 이 벽장은 내방에는 네 쪽의 장지문이 있고 주방편으로 유리창이 있어서 내방과 주방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내방에 있는 주부가 주방에서 일하는 식모를 감찰 혹은 명령하기에 편리하였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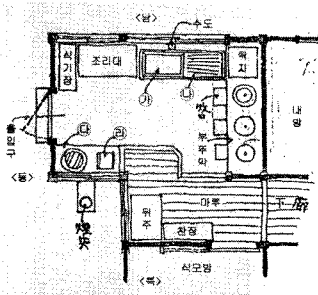


<그림 12> K씨 주택 부엌의 단면,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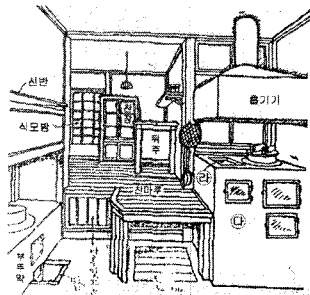
### 2) 부엌 평면 배치

<그림 13, 14>에서 ㉔는 화덕과 같은 것으로 여름에 밥을 짓는 입식화로와 술 한 개가 있고 위에는 흡기기가 설치되었으며 그 옆의 ㉕는 숯불이다. ㉖는 개수대로 주방의 중심이 되며 그 구조는 급수설비와 배수관이 있어 공동하수에 직결되어 물

36)박길용은 1931년 봄 K씨의 주택을 설계하였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의 주방설비를 하여주었다. K씨의 가족은 부부 2명, 아이 2명, 식모 1명이며 K씨의 직업은 은행원이다. 이 주택은 가옥 형식은 골자를 조선식으로 하고 수장에 양식과 일본식을 조금 가미하였고 건평 수가 1間 8尺平方으로 10間半이다(1尺 = 30.3cm). 박길용은 K씨 주택의 주방을 1932년 8월 동아일보에 <廚에 대하여>라는 주방개선 관련글로 소개하였다. - 김성중,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1, pp.54~56



<그림 13> K씨 주택 부엌 평면도, 1931



<그림 14> K씨 주택 부엌 투시도2, 1931

을 담아 사용한 후 오수를 하수구에 버리게 되어있다. 조리대는 그 옆에 식기장을 붙여서 편리하게 하였고 식기장이나 찬장과 같은 물건을 두는 곳은 전면 문을 뚫 수 있는 대로 투명하게 하여 속에 있는 물건을 볼 수 있게 하였다.<sup>37)</sup> 또한 선반과 탁자가 곳곳에 설치되어 수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개수대 밑에는 음식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었고 젖은 행주를 말릴 수 있는 행주걸이가 마련되는 등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인다<그림 11>.

### (3) 박길용의 개량부엌의 의의

일제초기의 문화주택은 일식과 양식을 절충한 주택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성격이 강했지만, 중기 이후의 문화주택은 박길룡과 같은 건축가들의 개량론에 힘입어 새로운 주택양식을 채용한 것으로 변모되었다.<sup>38)</sup> 근대 교육을 받은 한국인 건축가들은 조선의 기후양식에 맞지 않는 초기 문화주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서양식 주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생활양식에 적합한 주거양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박길용은 부엌과 식모방, 내방, 실외 공간 등 다른 공간 간의 연결에 주목하였으며 좌식형 작업을 입식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설비를 갖추어 기존부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는 한국부엌의 위치, 방향, 면적, 출입구와 창호, 재료, 구법, 설비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며 면밀히 검토하였다.<sup>39)</sup> 그러나 193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극심한 주택난에 처하면서 이러한 논의는 지속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규격화된 소주택의 대량 공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응하여 부엌은 구석으로 밀려나 1960년대 아파트 시대가 오기까지 폐쇄적 성격을 띠게 되며 박길용이 제안한 사항들은 1950년대부터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보급되게 된다.

## 4.2.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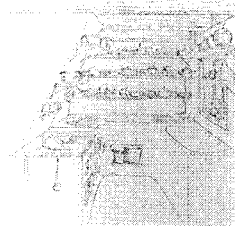
### (1)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의 집합 주택과 부엌

37)금정아, op.cit., pp.115~116

38)전남일 외, op.cit., p.107

39)"구미의 주가의 주방을 볼 적에는 실로 이상적이다. ... 그러나 우리는 요컨대 인접실과의 관계, 그 설비, 가구의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 연구하면 능률을 증진하고 좋은 주방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말이다." - 금성중, op.cit., p.53 박길용의 발언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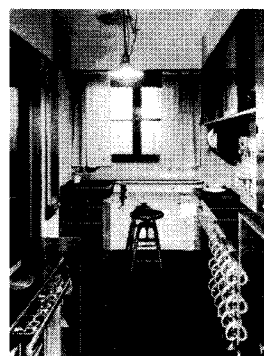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는 아돌프 로스(Adolf Loos)와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에게서 수련하였으며 주로 서민주택과 교육시설에 관계하여 활동하였다. 1921년 그녀는 '이주자 통나무집', 즉 순전히 나무로만 제작된 측면 길이가 4.5미터인 입방체 모양의 노동자 집합주택을 개발하였다. 이 집은 사다리꼴로 연결된 식당과 침실이 딸린 작은 공간을 불박이 서가와 가구, 접는 테이블, 개조된 창문, 부엌에 있는 작은 욕조 등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이주자 통나무집'을 원형으로 하여 단시간 안에 70채의 집이 건축예정지에 지어졌다. 그녀는 사회적 여건을 보는 시각으로 건축가로서의 경력을 쌓아갔으며 그녀에게 건축적 형상화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의 디자인 컨셉은 현실적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모든 계층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프랑크푸르트시 에른스트 마이의 규격화부서에서 대중주택건설에서의 최신기술의 가능성과 공사과정의 합리화 그리고 건축부품의 규격화에 전념했으며 주택건설시점에서의 주부와 직업여성의 가사를 덜어줄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여성공간으로 여겨진 부엌에 주목하여, 노동의 기능주의적 합리화의 원칙에 입각한 설계안을 입안하고자 했으며<sup>40)</sup> 400명 이상의 손님을 위한 요리가 이루어지는 기차식당 칸의 부엌을 모범삼아 부엌디자인에 적용시켰다<사진 10>. 마가레테 쉬테 리호츠키는 시·공간을 절약하는 다양한 부엌모델을 개발했는데, 1927년 프랑크푸르트의 국제무역박람회에 건본을 출품하게 된다<사진 11, 12, 13>.



<그림 15> 리호츠키의 부엌 스케치,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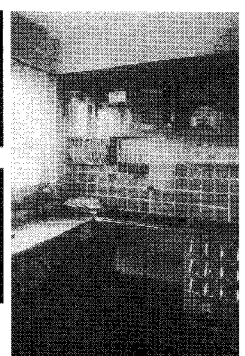
<사진 10> 기차 식당칸 '미트로바', 1927



<사진 11> 프랑크푸르트 부엌 조리대, 1927



<사진 12>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알루미늄서랍,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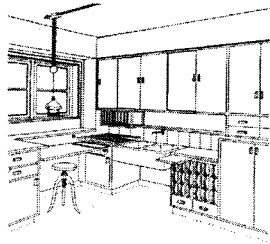


<사진 13> 프랑크푸르트 부엌 개수대, 1927

40)막달레나 피스터 외, 나는 미처도록 나에게 반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성 예술가 8인의 삶과 자유), 들녘, 2004



그 모델은 즉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그녀는 '프랑크푸르트 부엌'으로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 리호츠키는 가정주부클럽들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순회강연을 하여 현대적인 주방과 실내디자인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결국 그녀는 미와 실용성, 명료한 디자인과 노동의 합리화, 그리고 비용절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기능주의 건축이념에 입각하여 설계함으로써 부엌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sup>4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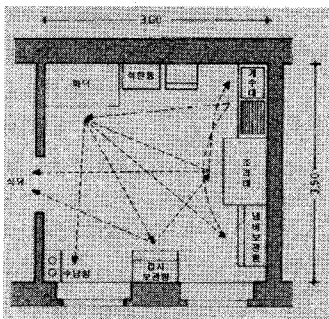


<그림 16> 프랑크푸르트 부엌 투시도,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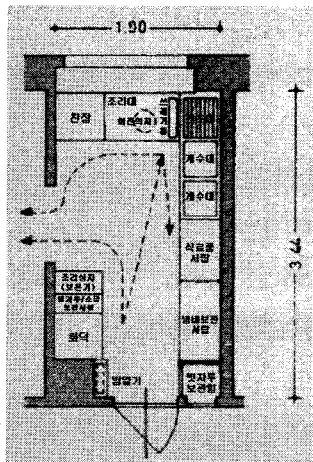
2) 프랑크푸르트 부엌

1) 주방 구조

주부의 시간, 노동력, 동선을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사 경영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일종의 작업장 시스템으로 리호츠키는 노동자 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양식인 집합주택에 적합한 부엌을 설계했다. 중앙은 움직이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전기제품은 긴 쪽 벽에, 조리대는 창문이 있는 짧은 벽에 배치했다. 벽을 보고 요리하게 되어있는 구조라든지, 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은 단점이라 할 수 있지만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주거 프로그램들 중 가장 호평 받을 정도로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되었으며 주부의 하루 동안의 동선 90m를 8m로 단축시켰다<그림 17, 18>.<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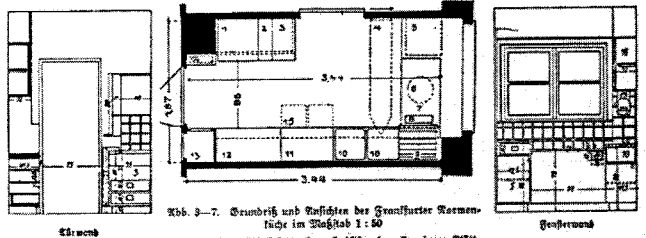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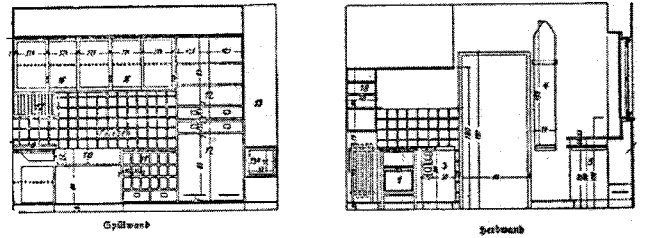
<그림 17> 1920년대의 부엌 동선



<그림 18> 프랑크푸르트 부엌 동선, 1927

41) 리호츠키는 강연들을 통해 노동력을 절감해주는 부엌 디자인, 위생적이며 합리적으로 구획된 화장실 설계,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저렴한 가구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단순성과 합목적성을 무미건조한 것으로 치부하면서 화려한 장식을 선호하였던 주부들은 단순성과 합목적성이 노동 절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재, 올바른 형태와 색깔, 쾌적함, 그리고 아름답고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 이란표, op.cit., pp.25~26

42) Ibid., pp.25~26 / 폴 볼트, <프랑크푸르트의 새로운 건축물> 무성 9분, 1928 - 금호미술관, op.cit.



<그림 19> 프랑크푸르트 부엌 평면과 입면,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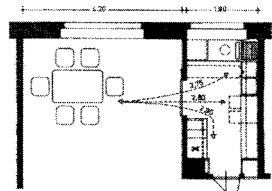
2) 부엌 평면 배치

부엌의 특징을 살펴보면 1.9m x 3.44m의 좁고 긴 형태이며 한쪽에 오븐이 놓여있고 그 옆에 냄비를 보온하는 조리상자가 있으며 선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원뿔형 전등과 접혔다가 펼쳐지는 다리미판, 난방이 가능한 방열기가 갖추어져있다. 또한 부엌에서 배수구장까지 통로로 이어진 쓰레기 배수구도 있었다. 그 외에 벤틸레이터가 화덕위에 설치되어 냄새와 연기를 흡수했으며 창문 아래에 음식보관함이 있어서 냉장고를 대신했다. 넓은 창문 아래에는 높이조절이 가능한 작업대가 있었는데 분리형 음식물쓰레기통이 갖춰진 커팅보드와 회전의자도 함께 설치되었다. 그 오른쪽 벽에 설거지를 할 수 있는 2개의 개수대가 있으며 그 위에는 나무로 된 접시꽃이가 유리 찬장 밑에 붙어 있어서 젖은 접시들을 건조시킴으로써 접시의 물기를 닦는 일이 생략되었고 왼손에서 씻어진 접시는 그대로 왼편 접시꽃이에 꽂혔다. 개수대 윗부분에는 갈고리모양의 행거들과 컵 거치대가 달려서 조리기구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방기구가 수납되고 그릇을 보관하는 캐비닛이 있고 불박이장에 저장되어있는 식재료를 꺼내어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개당 2kg 정도의 콩, 설탕 등을 넣을 수 있는 18개의 무광택 알루미늄 서랍<사진 12>이 밑 부분에 설치되어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그림 16, 18, 19>. 밀가루 벌레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나무 서랍이 설계되었으며 가구 밑을 청소할 필요가 없도록 불박이장을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켰다. 모던한



<사진 14> 재현된 프랑크푸르트 부엌, 금호미술관, 200809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단순하면서도 강한 색조의 소재들을 사용하였는데 부엌 벽과 벤틸레이터 후드의 하얀 색조는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며, 알루미늄 싱크대와 18개의 서랍은 금속성의 회색빛으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인상을 준다. 반면 리놀륨으로 된 조리대, 스토브 판, 바닥 타일 등은 검은 색으로 처리되었으며 에나멜 처리된 진열장 전면은 파리가 싫어하는 질은 청색이었다<사진 14>. 거실로 통하는 미닫이문이 부엌중앙에 설치되었고<그림 20><sup>43)</sup> 단절 없이 연결된 작업공간은 주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모든 기구들이 손에 닿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되어 한 사람에 의해 충분히 조작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sup>44)</sup>



<그림 20> 프랑크푸르트 부엌과 거실과의 연계, 1927

### (3)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의의

여성에게 기술자의 역할을 부여하여 부엌을 ‘과학적 경영’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작업동선단축에 주력하였던 리호츠키의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새로운 건축물이 등장하여 가사노동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던 그 시기의 시대상을 적절히 반영하여 집안일 역시 공장과 사무실 업무만큼이나 최소한의 노동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하인 없이 가사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해결책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입식주방의 전형이 된 프랑크푸르트 부엌에 따라 규격화, 표준화된 수만 개의 부엌이 만들어졌다.<sup>45)</sup> 프랑크푸르트식 부엌은 30년대에 스톡홀름에 소개되었고 여기에 나무를 사용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준 것이 스웨덴식 부엌으로 불려지면서 근대 부엌구조의 기본으로 알려지게 된다.

### 4.3.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비교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사회적·건축적 배경, 평면 및 계획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 2>와 같다.

##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초 한국과 유럽은 시대상과 이념은 상이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역할과 효율성, 새로운 주거문화에 대한 이상적 신념이 강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한국은 개항이후 근대 주택개량운동에 힘입어서, 그

리고 유럽은 도시화에 따른 주택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주거유형을 필요로 하였다. 이로 인한 주거 및 부엌의 변천을 통해 나타난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배경과 의의, 주요 계획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층적 주거환경의 변동을 배경으로 한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도시근로자형 집합 주택을, 박길용의 개량부엌은 개항 이래 서구화라는 외적요인과 일제시대의 문화운동의 영향을 받은 절충식 주택을 배경으로 한다.

둘째, 각 부엌의 의의는 고유의 주거환경에 부합하는 가사활동의 과학화 및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있다. 박길용의 개량부엌은 부엌과 타 공간간의 연결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동선을 축약시켰으며 주택 내에서의 합리적인 배치를 염두함과 동시에, 기존한옥의 온돌의 기능성을 유지하였다. 이는 외래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우리의 생활양식에 맞는 주택개량을 실천하고자 한 의지로 표명된다.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기능성과 대량생산에 대한 요구를 실천하고 부엌 내의 동선단축,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산업화에 적합하게 유형화하고자 한 최초의 현대식 부엌가구이다.

셋째, 두 부엌은 난방양식과 주요설비유형에 의해 각기 다른 계획 특성을 가진다. 박길용 개량부엌의 아궁이는 취사와 난방을 겸한 좌식형이며 그에 따라 바닥높이가 타 공간보다 낮고 부엌이 내방에 붙여서 계획되었고, 프랑크푸르트 부엌은 취사만 담당하는 입식화덕이 설치되어 타 공간과 바닥이 수평으로 연결되고 위치 또한 독립적이어서 거실 옆에 배치되었다. 또한 가구의 구성, 소재 및 색채계획에 있어서는 자체 제작된 박길용의 개량부엌보다, 더욱 진전된 산업화를 배경으로 한 프랑크푸르트 부엌이 보다 세분화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초 일본식의 가미, 구미식의 맹종, 재래식과 서양의 혼합, 재래형의 고수에 대해 비판하고 절충적 주택의 특성을 연구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주택개량을 주장한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정량적 기능주의를 실현한 현대부엌의 효시인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이상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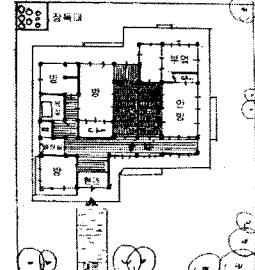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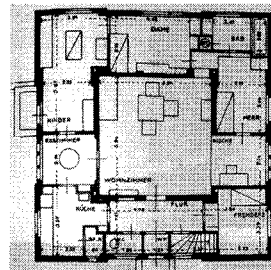
글로벌화 된 지금은 웰튼과 밀라노의 국제 박람회에서 소개되어진 트렌디한 주방이 실시간으로 유입되고 홈 네트워크, 첨단 하드웨어로 구성된 장비가 주방에도 영향을 미쳐 내일의 주거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있다. 박길용의 개량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이 그러했듯 미래주거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친환경, 녹색성장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의 정체성 있는 주거문화가 발전되길 기원해 본다.

43)이렇게 하여 주부는 부엌에서 아이들을 살필 수 있고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는다고 리호츠키는 강조하였다.

44)이란표, op.cit., pp.25~26 / 금호미술관, op.cit

45)또한 독일은 1926~30년 대규모 사회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바이마르공화국 때 주택과 아파트 1만여 채에 현대식 주방가구를 설치한 바 있다. - 막달레나 퀴스터 외, op.cit.

<표 2> 박길용 부엌과 프랑크푸르트 부엌의 배경 및 계획특성 비교

비교항목		한국	유럽	
사회	시기	일제시대의 문화정치기간(1919~1931년)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전후	
	산업	개항 / 산업화, 도시화 시작	산업화, 도시화 전개(대량생산체제)	
	사상	합리주의 등장 / 신생활, 신문화 유입 / 계몽주의운동	합리주의 보급	
	여성	여성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신여성 등장 유교사상의 쇠퇴로 여성에 대한 인식 및 지위개선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여성의 사회진출 진행	
주거	동향	주택 개량운동 전개	주택의 표준화, 규격화에 대한 연구	
	특징	외국의 주택유형이 한옥과 절충됨 (외관이 서양식, 일본식인 주택에 온돌방이 설치됨)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축, 유지 될 수 있는 주택이 개발됨	
	유형	문화주택, 도시한옥	다세대 집합주택	
주거	대표적 주택	<p>조선건축학회의 현상설계 '조선풍주택설계' (오영섭, 1937)</p> <p>- 조선풍 1등 당선도안 : 전통적인 조선 재래풍 외관에 기능적 고려를 한 개선된 평면 형태</p> 	<p>바우하우스 실험주택 (개오르크 무헤, 1923)</p> <p>- 중앙에 20평방 피트의 넓은 거실을 두고 주위에 거실보다 면적이나 층고가 작은 침실, 어린이방, 식당, 주방, 현관을 배치하여 주택의소형화를 이루고 건축비, 유지비를 낮춤</p> 	
	설계안	<박길용의 개량부엌>, 1931년	<프랑크푸르트 부엌>, 1927년	
레이아웃	형태	정방형	좁고 긴 장방형	
	향	동향	고려하지 않음	
	면적	주택면적 15~16평 기준으로 3평 / 10m <sup>2</sup>	3.44m × 1.90m / 6.5m <sup>2</sup>	
	바닥 높이	타 공간과 연결된 찬마루와 그 보다 낮은 바닥으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타 공간과 같은 높이의 바닥	
	부속 공간	장독대, 마당 : 실외	식당	
	출입구	실외, 식모방, 내방 : 3군데	실외, 식당 및 거실 : 2군데	
	동선	타 공간과의 연결에 중점을 줌	부엌 공간 내에서의 동선에 중점을 둠	
	내실화	불안전 내실화	완전한 내실화	
부엌	공간 성격	폐쇄적	폐쇄적	
	기능	식사 준비 및 정리, 난방하는 공간 : 온돌구조로 인함	식사 준비 및 정리, 다림질 하는 공간 : 주부의 작업공간이라는 개념이 강함	
	음식물 저장	실외 장독대, 찬마루의 뒤주	알루미늄용기, 저장용 찬장	
	가구	조리대, 개수대, 식기장	조리대, 개수대, 식기장, 건조대, 다리미판	
	설비	급배수	수도	수도
		배기	흡입기	흡입기
		취사 난방	아궁이	아궁이, 보온상자, 방열기
	소재 및 색상	바닥	콘크리트	검은 타일
벽		연와벽(벽돌, 회벽)	백색	
가구		목재 / 위생을 고려한 백색	목재, 알루미늄 / 위생을 고려한 청색	
제조공정		각 가정에서 자체 제작함	공장제품화 됨	

참고문헌

1. 주남철, 이조 말부터 1945년도까지의 한국의 주택변천, 대한가정학회지 14:38, 1970
2. 황중수, 개항이후 한국 재래 부엌의 변천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0
3. 곽용재, 한국 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0
4. 금성중, 한국인 건축가에 의한 근대주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1
5. 최순애, 박길용의 생애와 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1
6. 이미혜, 한국 현대 부엌가구의 변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5
7. 고용화, 우리나라 주택주방 변천에 관한 연구, 청주대 석사논문, 1994
8. 이영주, 개항이후 한국재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86
9. 금정아, 일제시대 주택개량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1
10. 서은진, 서울 생활권 소재 중·대형 공동주택 단위세대 계획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 디지털정보대 석사논문, 2003
11. 이영훈, 바우하우스 조형 이론과 현대 디지털 디자인 이론과의 상관관계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4

12. 정신원, 1920년대 유럽의 주거공간과 강관 의자디자인의 비교 연구, 경원대 석사논문, 1998
13. 정신원·신홍경, 1920년대 유럽의 집합주택에 적용된 강관의자디자인의 특성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8
14. 이란표, 초창기 모더니즘 여성 건축가 마가레테 슈테-리호츠키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5
15. 함한희, 부엌의 문화사, 살림출판사, 2005
16. 백영홍·안옥희, 한국 주거역사와 문화, 기문당, 2003
17. 전남일 외,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18. 노버트 웨나우어, 김, 다우, 2004
19. 한스 M.빙글러, BAUHAUS, 미진사, 2001
20. 윤재희 외, 바우하우스와건축, 세진사, 1994
21. 막달레나 퀴스터 외, 나는 미치도록 나에게 반한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성 예술가 8인의 삶과 자유), 들녘, 2004
22.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부엌×키친展>, 200609
23. 금호미술관, <Utopia - 이상에서 현실로>, 200809
24. 폴 볼트, <프랑크푸르트의 새로운 건축물> 무성 9분, 1928
25. <http://www.poggenpohl.de/>

<접수 : 2009. 2. 28>